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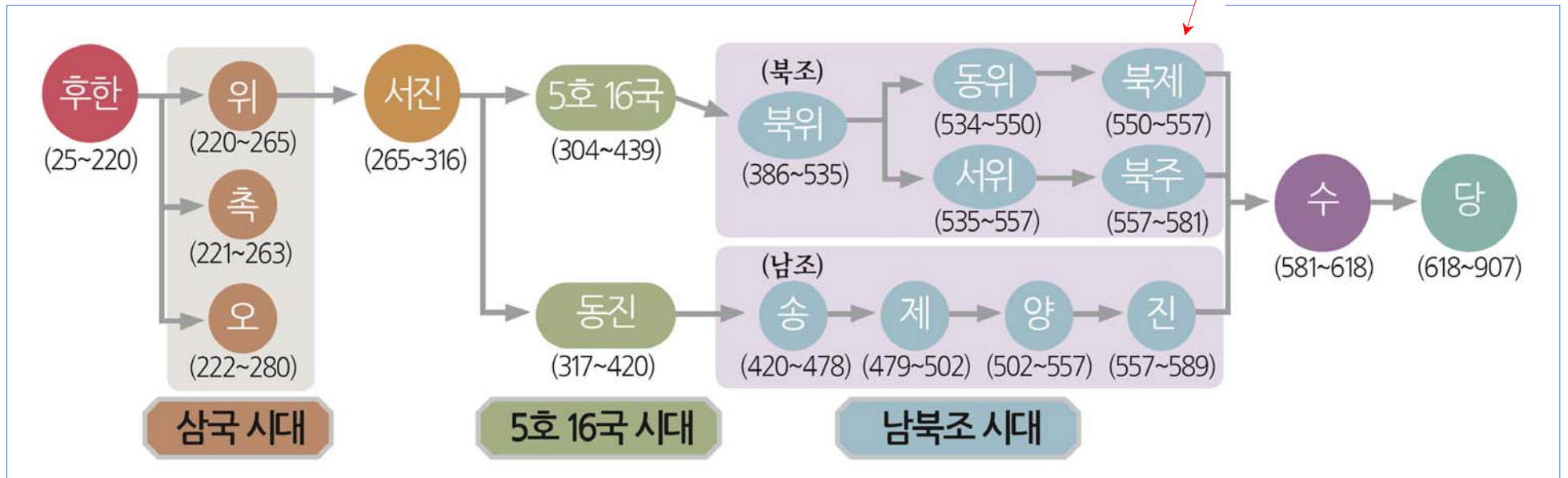


- ① BC. 207
BC. 194
- ② 진국의 한왕
- ③ 이타스케 유적
- ④ BC. 37
- ⑤ BC. 18
- ⑥ 304
- ⑦ 317
- ⑧ 삼국 항쟁기 도왜인 전방후원분 씨성 제도

◎ 인구 이동의 요인 : ①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② 인구 증가, ③ 종족 간 또는 종족 내부의 정치적 갈등, ④ 국가 사이의 전쟁

사명감 충만!!

교정 [북제(550 ~ 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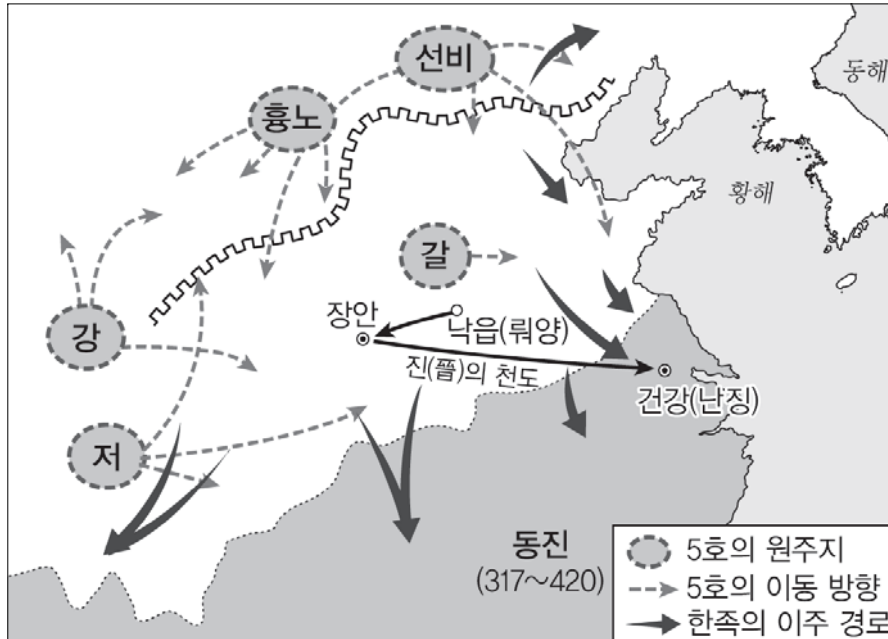
(420 ~ 439 ~ 589)

◎ 인구 이동

선비, 흉노 등의 북방 민족은 만주와 몽골 등지에서 남하하여 화북 지방에 거주하다가, 3세기 이후부터 한쪽을 누르고 잇따라 독자 정권을 세웠다. 한쪽은 이들을 5호(흉노, 선비, 갈, 저, 강족)라고 불렀다. 그중 선비족의 일파가 세운 전연(337 ~ 370)과 후연(384 ~ 407)은 요서와 지금의 베이징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고구려와 라오둥(요동) 지역을 두고 패권을 겨루기도 하였다. 5호가 세운 여러 나라는 439년 선비족의 또 다른 일파가 세운 북위에 의해 통일되었다.

한족 정권은 5호에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창장 강 이남의 강남 지방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강남 지방의 토착민과 협력하여 317년 건강(지금의 난징)을 중심으로 동진을 세우고, 화북의 5호 정권과 대립하였다. 이후 강남 지방에는 한족 왕조들이 차례로 들어서서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에 세운 북조와 대립하였다.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4세기



5 ~ 6세기



中

- : 화북에서 5호 16국 시대 개막(304 ~ 439), 북위 건국(386)
- : 한족의 강남 이주(동진, 317 ~ 420)

韓

- : 백제 근초고왕(재위 346 ~ 375)의 전성기
- : 전진 → 고구려, 불교 수용(372)
- : 동진 → 백제, 불교 수용(384)

日

- : 칠지도 전래(369)

中

- : 남북조 시대(439 ~ 589)
- : 북위 효문제(재위 471 ~ 499)의 호한융합 정책 실시
 - ↳ 균전제(485), 삼장제(인장·리장·당장), 한화 정책(호어·호복 금지)
- : 돌궐의 유연 격파(552)

韓

- : 장수왕(재위 413 ~ 491)의 남북조 등거리 외교
- : 백제 무령왕릉 축조(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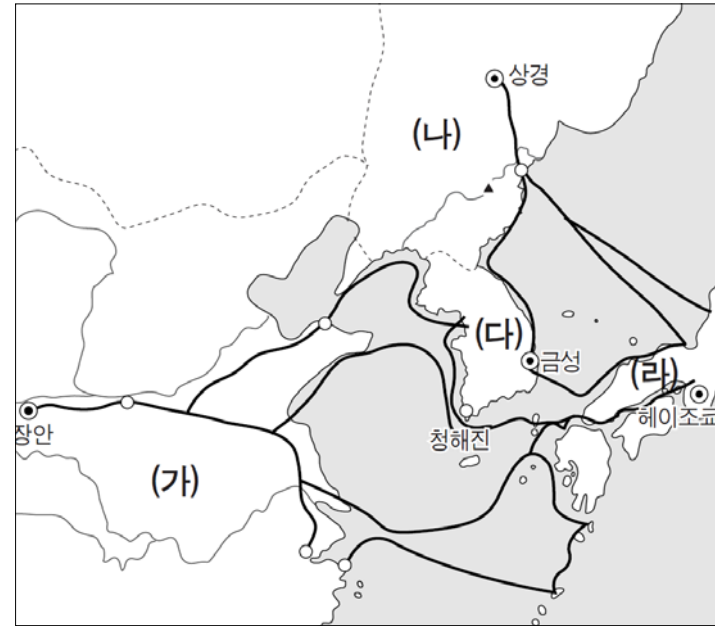
日

- : 스에키 토기(5C, 백제·가야), 불교 전래(from 백제, 552)

7세기 전반



8세기 이후



中
: 수(581 ~ 618) 멸망 → 당(618 ~)의 재통일

韓
: 돌궐 + 고구려 + 백제 + 왜 對 당 + 신라, 648

日
: 견수사, 견당사(630) 파견, 다이카 개신(645)

돌궐
: 동돌궐(583 ~ 630), 서돌궐(583 ~ 657), 킨 테긴 비(732)

토번
: 라싸, 송첸감포, 문성공주[640년, 당(唐) 태종(재위 626 ~ 649)]
: 투옥혼 정복(663)



中
: 당(唐, 618 ~ 907),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 안남도호부(679 ~ 862), 아베노 나카마로 입당(717)

韓
: 통일 신라(676 ~ 935)
: 발해(698 ~ 926)

日
: 당(唐)의 문물 수입
↳ 견당사(630 ~ 894)
: 다이호 율령(701)
: 헤이조쿄 천도(710 ~ 794)

외번공주(和蕃公主)

- ▷ 흥 노 : 왕소군(BC. 1C)
- ▷ 돌 궐 : 안의공주(수, 597)
: 의성공주(수, 599)
: 형양공주(당 태종, 7C)
- ▷ 토 번 : 문성공주(당 태종, 640)
- ▷ 위구르 : 함안공주(당 덕종, 8 ~ 9C)

Check!

인구 이동과 지역 국가의 성장(연표 정리)

280년	304년	317년	346년	351년	384년	386년	413년	420년	439년
진(晉), 중국 통일	5호 16국 시대	동진 건국	근초고왕 즉위(~ 375)	전진 건국(~ 394)	후연 건국	북위 건국(~ 534)	장수왕 즉위(~ 491)	송(宋) 건국	남북조 시대

460년	471년	479년	485년	493년	502년	525년	540년	545년	550년
원강 석굴 사원	효문제 즉위(~ 499)	제(齊) 건국	균전제 실시	북위 ↳ 휘양 천도	양(梁) 건국	무령왕릉 축조	진흥왕 즉위(~ 576)	돌궐 ~ 서위의 동맹	북제 성립(~ 577)

552년	557년	574년	581년	583년	589년	604년	607년
돌궐의 유연 격파	진(陳) 건국 북주 성립(~ 581)	쇼토쿠 태자 출생(~ 622)	수(隋) 건국	동돌궐(~ 630) 서돌궐(~ 657)	수(隋), 중국 통일	쇼토쿠 태자의 섭정(~ 622)	호류 사 창건 ↳ 아스카 문화

612년	618년	626년	629년	630년	640년	645년	649년	663년
살수 대첩	당(唐) 건국	당 태종 즉위(~ 649)	현장, 인도 여행	견당사 최초 파견	문성공주 → 토번	안시성 전투 다이카 개신	송첸캄포 사망	토번의 토욕혼 정복 백강(구) 전투

671년	676년	679년	698년	710년	717년	719년	732년	737년
쓰쿠시 도독부 설치 ↳ 다자이후	신라 ↳ 삼국 통일	안남도호부 설치 (~ 862)	대조영, 진(震) 건국 ↳ 발해(713)	헤이조쿄 천도 ↳ 나라(~ 794)	아베노 나카마로 입당(入唐)	발해 무왕 즉위 ↳ 재위(~ 737)	궐 테긴 비	발해 문왕 즉위(재위, ~ 793) ↳ 당과 친선(762)

Check!

기원 전후 ~ 8세기경의 집단적 인구 이동

부여족

- 송화 강 → 동가 강 → 한강
- 토착 세력과 연합
- : _____, 백제 건국

선비·흉노 등 호족(胡族)

- 만주·몽골 → _____ 지방으로 이동
- 호족과 한족의 융합
- 5호 16국과 북조 국가 건설

한족(漢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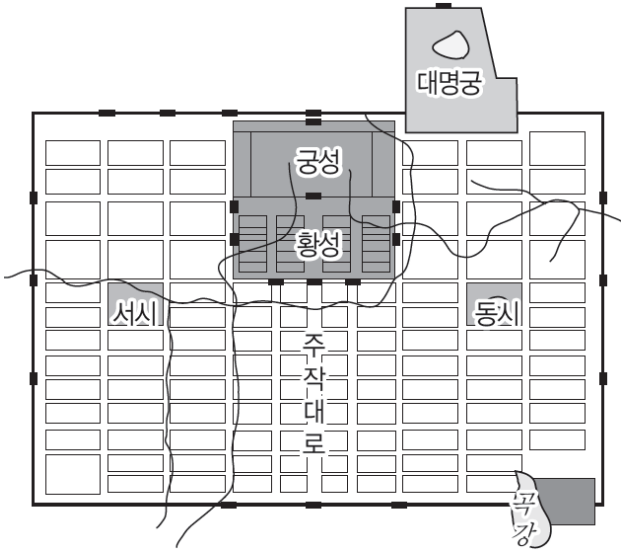
- 화북 → _____
- 토목 기술 전파

토라이진(渡來人)

- 한반도, 강남 → 일본 열도
- _____ 정권 성립에 이바지
- _____ 문화 발달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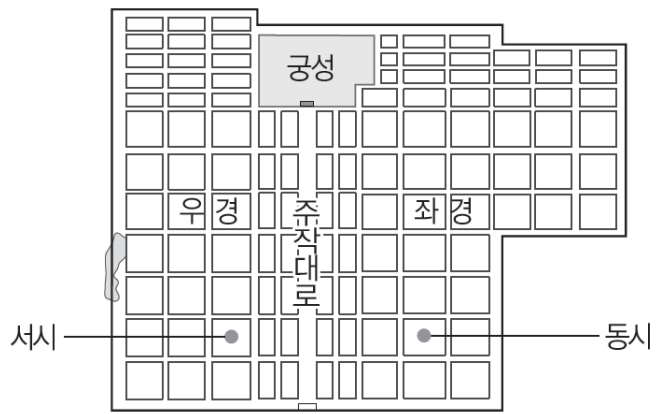
당 대의 문화 교류



<당의 장안성>



<발해의 상경성>



<나라의 헤이조쿄>

개념 Check

- ① 부여족의 주몽은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방으로 남하하여 ()를 세웠다.
- ②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정권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생기자, 온조는 () 유역으로 남하하여 백제를 세웠다.
- ③ 흉노 등 북방 민족이 화북 지역을 점령하자, 진(晉)의 한족이 양쯔 강 이남으로 이동하여 317년에 ()을 건국하였다.
- ④ 일본에서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왜로 이주한 이주민을 ()이라 부른다.
- ⑤ 4 ~ 7세기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의 인구 이동은 () 정권이 성립되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⑥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은 거대한 무덤인 ()을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였다.
- ⑦ 439년 화북을 통일한 ()는 효문제 때 한화(호한융합) 정책을 통해 농경민과 유목민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려 하였다.
- ⑧ ()는 신라에 지원군을 보내 왜를 물리치고 가야 지역까지 공격하였다.
- ⑨ ()의 송첸캄포왕은 비단길과 쓰촨 지방을 공략하여 당(唐)을 압박하였다.
- ⑩ 왜에서는 645년에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한 ()이 단행되었다.
- ⑪ 왜는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 입구에서 나·당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다.
- ⑫ 668년 고구려 멸망 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698년에 ()를 건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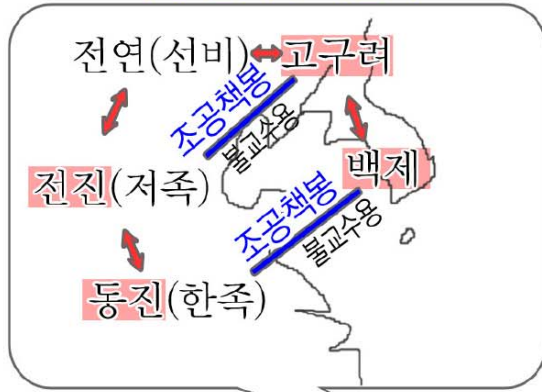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가) 백제는 고구려가 원조할 것을 믿고 자주 신라를 침략하였는데, 신라왕 김춘추는 표문을 올려서 구원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소정방을 행군대총관으로 삼아 수군과 육군 10만으로 백제를 정벌하게 하였다. 또한 김춘추를 우이도 행군총관으로 삼아서 신라의 무리를 거느리고 그와 세력을 합치게 하였다. - 『자치통감』
- (나) 29일에 이근행이 당나라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우리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도망하게 하고는 전마 3만 380필을 얻었으며, 남겨놓은 병기도 그 정도 되었다. …… 사찬 시득이 신라의 수군을 거느리고 기벌포에서 설인귀와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을 벌여 이기고서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 『삼국사기』

- 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
- ② 일본에서 헤이조쿄(平城京)가 건설되었다.
- ③ 베트남 지역에서 반랑국이 발전하였다.
- ④ 고구려가 신라에 지원군을 보내 왜를 물리쳤다.
- ⑤ 왜군이 백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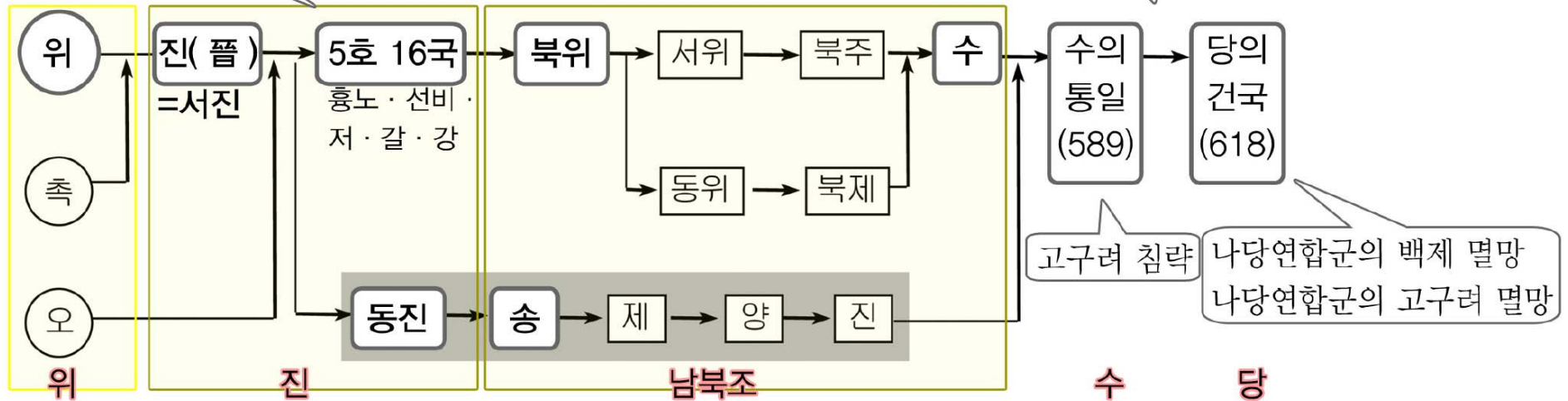
국제 질서의 다원화



국제 질서의 다원화



중국 중심 질서의 회복



Check!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외교 관계

1 한(漢)과 흉노

이 무렵 한나라 장수 가운데 흉노에 투항하는 자가 많았다. 목적은 언제나 대군 일대를 넘나들며 약탈하였다. 한나라 고제(고조)는 고민 끝에 유경을 시켜 종실의 공주를 선우의 연지(왕비)로 삼게 하고, 해마다 흉노에게 일정량의 무명, 비단, 술, 쌀 같은 식품을 보내어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속하였다. - 사마천, 『사기』 흉노 열전

2 후한(後漢)과 왜(倭)



57년에 왜의 노국(奴國)이 공물을 가지고 와서 축사를 하였다. 사신은 자기 스스로 대부라 하였다. 노국은 왜국의 남쪽에 있다. 광무제는 인수(印綬)를 주었다.

- 범엽, 『후한서』동이 열전

3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국 중심 세계관

- 광개토 대왕이 영락태왕을 칭하였는데 그 은혜와 혜택이 하늘에 이르고 위엄과 무공은 온 세상에 떨쳤다. …… 백진(백제)과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바쳤다.
- 왜의 국서에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 라고 하니, 수 황제가 불쾌히 여겨 무례한 오랑캐의 글은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

4 고구려와 돌궐

영양왕 18년(607) 초, 수의 양제가 카간(계민)의 장막에 행차하였을 때 고구려 사신이 카간의 처소에 있었는데, 카간이 사신을 감히 숨기지 못하고 함께 황제를 알현하였다. …… 황제가 칙명을 내리기를 “…… 돌아가면 너의 왕에게 빨리 와서 조회하라고 전하여라. …… 그렇지 않으면 장차 계민을 거느리고 너희 땅으로 순행할 것이다.”

- 김부식,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5 (가) []과 (나) []



그림은 티베트의 여러 세력을 통합한 (가)의 송첸캅포가 보낸 사신이 (나)의 황제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보련도』이다. 이 황제가 신하들과 정치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정관정요』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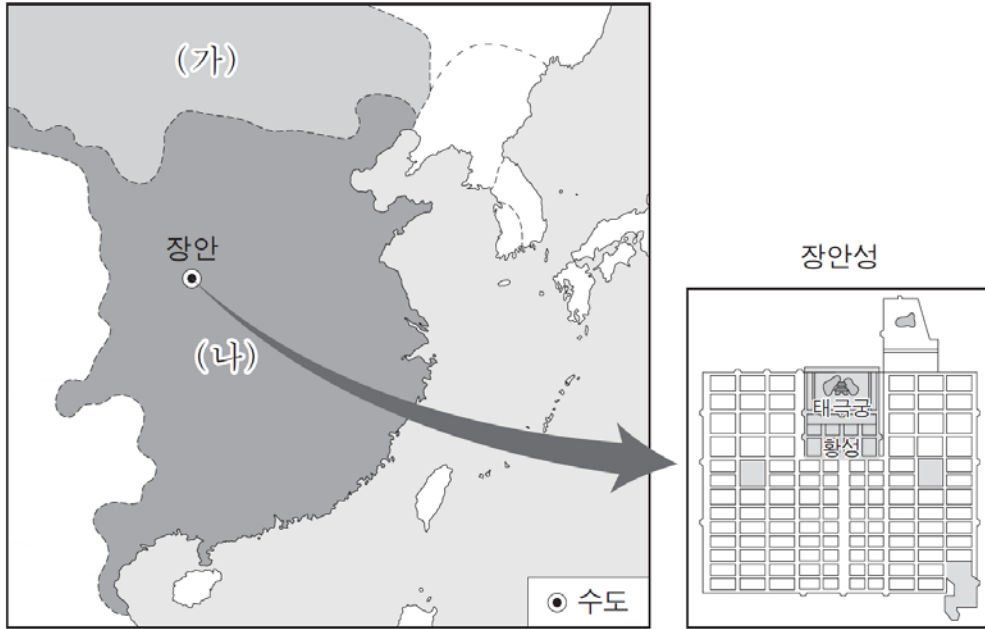
▶(기) 국기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장면은 유목 국가와 농경 국가가 전투하는 모습을 등에 새긴 것이다. 이 가운데 뾰족한 모자를 쓰고 활을 쏘는 사람은 **(기)**의 병사라고 한다. **(기)**은(는) 북쪽 선우 때 동호와 월지를 제압하였고, 선우 아래에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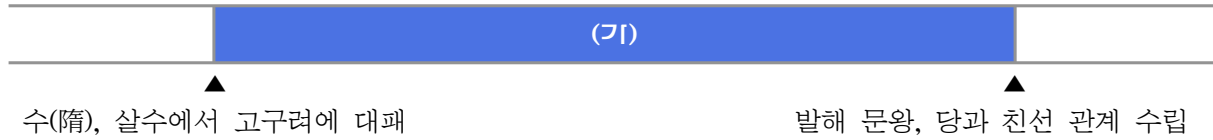
- ①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였다.
- ② 북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 ③ 위구르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 ④ 한 무제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 ⑤ 어우락 왕국을 정복하였다.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백제의 부흥 운동을 지원하였다.
- ② (가) - 남북조를 통일하고 대외 확장을 도모하였다.
- ③ (나) - 신라와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다.
- ④ (나) - 어울락(어우락) 왕국을 멸망시켰다.
- ⑤ (나) -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 일본은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 ㉡ 신라는 당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 ㉢ 북제는 돌궐에 조공 사절을 파견하였다.
 - ㉣ 쩌 왕조는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미래엔 교과서』, p.49

북주(557 ~ 581)는 돌궐과 화친한 뒤 해마다 막대한 물자를 보냈다. 북제(550 ~ 577)도 돌궐이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해 역시 돌궐에 많은 재물을 주었다. 이로 인해 돌궐은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남쪽에 있는 두 아이가 효성을 바치기만 하면 어찌 물자가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 『주서(周書)』

▶ 『비상 교과서』, p.54

(돌궐의) 사근(카간)이 딸을 북주의 무제에게 보낼 것을 승낙하자 북제도 (돌궐에) 청혼하였다. 북주의 청혼이 수용되어 그 딸이 무제의 황후가 되었다. 돌궐은 북주와 북제 양국을 조종하여 양쪽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냈다. 사근을 이은 타발 카간은 “나에게는 남방에 두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으니 물자가 없어질 걱정이 결코 없다.”라고 호언하였다. - 『주서(周書)』